

HOLY HABIT MOVEMENT PART 3

2. 겸손 - 그리스도를 본받아

1.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다고 여기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의 말이나 SNS를 통해 드러내고 싶었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적어봅시다.

• 나눔 예시

❶ 스스로 이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다 여기는 점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특히 교회나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려 노력해 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말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곤 했습니다.

❷ 나의 말이나 SNS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

내가 한 일이나 성과, 또는 내가 어떤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나 감동적인 글을 나누면서 ‘나는 이런 사람 이야’라고 은근히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명분 뒤에 내 자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 이외 봉사나 인간관계에 대한 자랑, 학업이나 성적 혹은 성과에 대한 인정, 가정 중심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정, 외모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자랑 등
-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교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자신의 교만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2. 1번 질문에 대해 답으로 적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안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❶ 자랑 대신 ‘감사’로 표현하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 없이 주신 은사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❷ 중심을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나는 도구였을 뿐, 진정으로 이루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칭찬과 인정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③ 결과보다 ‘순종’과 ‘섬김’을 강조하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 믿음의 열매는 감사이며, 감사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사람들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까요? 창조주 안에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자존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세상적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참된 자존감)
존재적 가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소중한 존재야”
가치의 근거	내가 해낸 것, 이룬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리의 말씀
높은 자존감 형성과정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며 나를 채우신다.”

- 겸손은 자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는 것이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 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 시키신 이유가 바로 자신임을 알기에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찾으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불안정한 자존감이 아닌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 겸손은 이러한 자존감을 토대로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인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비추어 볼 때 진정한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4. 현재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 그리고 거기서 얻은 성취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있나요?

- 이 질문은, 단지 ‘잘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넘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와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성취를 자랑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SNS, 자기계발, 비교 중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마치 자기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신 8:17-18; 렘 9:23-24; 고전 4:7).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관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고전 4:1-2; 벧전 4:10).
 -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 헤아릴 수 없는 부, 말 한마디로 모두를 복종시키는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 또한 교만하다 결국 제정신이 아닌 채 들짐승처럼 7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야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단 4:34-35).
-

5.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는 교만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갑시다.

- **교만한 내가 돌이켜 회개할 것:**

1. 내 힘으로 이만큼 해냈다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성과와 실력(공부, 업무), 노력과 끈기, 리더십과 영향력, 경제적/사회적 성취, 영적/신앙공동체 내 헌신 등 무엇이 나의 자랑거리인지 한 번 살펴봅시다.
-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무엇도 두렵지 않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분개하여 그들을 불 속에 집어 넣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후 여전히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받을 징계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된다는 꿈으로 나타난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2.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왕에게 고난을 내리셨나요?

-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들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말씀을 깨달은 이후 느부갓네살은 그때 바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하루 이틀 정도는 회개해야 하나 고민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그는 꿈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궁을 거닐며 한가롭게 말합니다.
 -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단 4:30)
- 이 한 절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네 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끝이 없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자신의 권세로 대제국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경고를 받았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윽고 꿈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스스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은 교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은 실상과 다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이 교만한 줄도

모릅니다.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병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만이 아니라 교만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광야를 만나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교만함이 치료되고 산산이 조각난 자아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공/성취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교만이 아닌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자리에 항상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의 곁에 계셨습니다.

4. 1번에서 대답한 내용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 다시 말해 봅시다.